

브루나이에서도 한국 특허 그대로 인정된다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세 번째 특허인정제도 시행

특허청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인정제도를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기초해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인정신청을 함으로서 브루나이에서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브루나이는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한국 특허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세 번째 국가이다.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양국 정상 간의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국민 방론회 하차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촉진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특허심사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브루나이에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며 1년 6개월이 넘는 긴 기다림 끝에 이번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브루나이는 2017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 중 광물성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최근 브루나이 정부는 산업 다각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브루나이가 시행하는 특허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이 브루나이에서 빠르게 특허를 획득해 안정적인 정착하도록 할 뿐 아니라, 브루나이 정부 입장에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인해 산업 다각화를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다른 나라에

서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특허심사품질을 제고하는데 더욱 힘쓰는 한편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국특허가 아세안을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귀성/기자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 도심형 인공서핑 복합테마파크 시흥에 개장

지자체들 유니버설스튜디오, MGM등과 MOU만 수차례 결국 무산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 인공서핑 복합테마파크가 오는 7일 개장한다. 작년 5월 공사를 시작한 이래 1년 6개월만에 개장하는 '웨이브파크'는 수도권 주민들이 한 시간이면 에메랄드빛 인공해변과 파도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 축구장 5배 크기로 조성됐다. 글로벌 테마파크가 전무하던 국내에서 스페인의 기술투자를 통해 인공서핑을 테마로 한 해양테마파크가 경기도 시흥시에 개장함으로써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나 도쿄 디즈니랜드에 못지않은 대규모 해양 테마파크 단지 조성이 시작됐다. 인근 화성에 신세계가 수년 내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이 일대가 플로리다와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 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원플러스그룹과 2018년 테마파크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년 6개월 만에 총 면적 32만 5,300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중 1단계로 서핑테마파크를 개장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서해안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의 핵심시설이 완공된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서핑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이곳에는 레저, 휴양, 문화, 예술이 반영된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조성된다. 서핑을 즐기지 않더라도 가족 단위의 휴양객을 위해 도쿄 디즈니씨와 같은 다양한 어트랙션 코스가 개장된다.

인공 스킨스쿠버 다이빙시설과 스노클링 존, 파도풀 등 아이와 어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제공되며 인공라군에는 카약, 수

상바이크, 블롭점프, 스노클링, 수상 카라반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스페인 최남단에 위치한 휴양지 'Costa del Sol'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웨이브파크는 수도권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웨이브파크 최상점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과 1,000만 도시 서울시와 가까운 지리적 입점으로 인해 일본이나 중국, 싱가포르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심정으로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나 도쿄 디즈니랜드에 못지않은 대규모 해양 테마파크 단지 조성이 시작됐다. 인근 화성에 신세계가 수년 내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이 일대가 플로리다와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 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원플러스그룹과 2018년 테마파크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년 6개월 만에 총 면적 32만 5,300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중 1단계로 서핑테마파크를 개장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서해안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의 핵심시설이 완공된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서핑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이곳에는 레저, 휴양, 문화, 예술이 반영된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조성된다. 서핑을 즐기지 않더라도 가족 단위의 휴양객을 위해 도쿄 디즈니씨와 같은 다양한 어트랙션 코스가 개장된다.

인공 스킨스쿠버 다이빙시설과 스노클링 존, 파도풀 등 아이와 어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제공되며 인공라군에는 카약, 수

최정부/기자

유근기 곡성군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가 6일 제 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은 재선 이상의 단체장 중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상자들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확산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25회 최고경영자상에는 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가 수

'군민행복지수 1위' 비전 실현의 구체적인 실행 리더십 인정

상했다. 유 군수는 '군민행복지수 1위'를 군정목표로 목표 실현을 위한 군정운영 6대 방침 및 실천전략을 수립해 군민체감형 군정을 펼치고 있다.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차 공적서류 평가를 거쳐 2차 전문심사위원회 인터뷰 평가가 진행됐다. 3차 평가는 리서치 전문가 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곡성군은 1, 2차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은 물론 특히 3차 평가

에서 어느 지역보다 군민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아 최고경영자상을 받게 됐다. 평가요소였던 주요 수상공적을 살펴보면 곡성 100년 대계의 구체화를 위한 핵심 전략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 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특화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이 돌아오는 곡성실현을 위해 농촌

교육과 인문 체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토란, 멜론, 백세미 등 지역농산물 명품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과 아동, 여성, 노인 등 전 세대에 걸친 촘촘한 그물망 복지 실현 정책 등 6대 군정운영 실천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곡성군은 내실 있는 공약이행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SA등급,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 2019년 사회조사 결과 군민 96.1%가 지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유근기 군수는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곡성군이 되도록 계획이 성과로 이어지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추미애 반격 '적반하장'인가? 거짓말 논란은 해명 없어

추미애 국회 거짓말 논란에도 언론과 야당에 강한 반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격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이전 지난달 국회에서 계속된 아들 병역 특혜 관련 제1야당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른바 '반격'이 시작됐다는 거다. 국회 제1야당과 국민의당 등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아들 병역특혜 논란과 관련 투명한 해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27번 거짓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가?"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거취문제까지 들고 나온 모양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의 이런 반격과 주장 속에는 국회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던 '거짓말 논란'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을 찾아볼 없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가일층 확산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미 아들과 딸 청탁관련 의혹으로 거듭해서 고발도 당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연, 대표 이종배)는 지난달 2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연은 이날 고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는 거다. 법세연은 이날 "추미애 장관은 아들 서씨의 휴가 기간에 보좌관에게 메신저를 통해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사실상 부대에 연락할 것을 지시했고, 휴가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는 등 깊이 관여했다"고 고발 이유를 분명히 했다. 법세연은 나아가 추미애 장관이 9월 한달 동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과정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결위에서 '서씨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기탱천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 상

에서 성난 민심을 쏟아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추미애 발언 진실 여부, 현재 군대에 대한 예비역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과연 아무런 연락이나 지시 청탁이 없이 '연이은 병가와 휴가를 부대 밖에서 보내고 임대하고 싶은 날 자의적으로 귀대할 수 있는 부대가 있는지.' 등을 전수조사해 보면 추미애 장관 발언의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런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반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무게를 얻고 있다.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매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이 9월 한달 동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과정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관련 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그간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발표된 결과에 대해 국회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수

차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매체에서는 "국회 속기록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분석한 결과,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회, 같은달 14일과 17일 국회에서 진행됐던 대정부질문 등 국회에서만 세 차례에 걸쳐 최소 27회를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를 연장한 사실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추미애 장관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일관되게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했지만,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이 기습적으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이 발언들은 모두 거짓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했다. 보좌관은 "에 통화했었습니다"라며 "결과 보고"까지 했다는 사실적 내용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휴가 연장 과

정에서도 "아들이 스스로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부대에) 직접 보냈다"고 주장했다. 휴가 (연장) 신청 시점에 대해서도 "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이 진단서 등 서류를 부대로 제출하는 과정을 스스로 처리했다는 추미애 장관 답변도 거짓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은 추미애 장관에게 "(아들)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속기록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됐는데, 유상범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

가로 처리해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라고 물어봤잖아요"라고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유상범 의원이 다시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라고 재차 묻자 추미애 장관이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다.

최광수/기자



코로나19發 학습격차 심화와 공교육 위기 극복 대책 촉구

유치원·초등 1·2학년 학생,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 전담교사 배치 필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등교수업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 등 코로나19發 학습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1)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80.9%, 관리자의 80.08%, 학부모의 81.65%, 학생의 62.8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고 2)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하며 3) 10명 중 5명은 원격수업 후 사교육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장기화 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공백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

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 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 학부모들과 일선 교육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실제 사교육 의존 확대에 대한 교육격차 심화 등 공교육 위기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학교 현장은 지역별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3은 매일 등교, 고1·2는 전체 인원의 2/3 이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등교 제한 인원 기준을 상급학교와 고학년에 맞춰 높게 잡은 것은 대학 입시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원격

학습이 어렵고 특히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경우 학습 결손과 기초학습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돌봄공백과 학습공백의 문제가 저학년일수록 더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학습 결손과 기초학습 부족, 그리고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 위기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나아가 "방역 강화를 전제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최우선으로 책임등교를 실시하고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과 기초학습 부족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 등 교육 선진국의 경우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2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격차와 공교육 위기 극복에 필요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지난 24일 교육 5대 핵심대책 촉구 기자회견의 의미에 대해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다수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 교육환경을 경험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장현국 의장, '지자법' 개정안 통과 건의 차 국회 방문예정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한다.

장현국 의장은 진용복 부의장·문경희 부의장과 함께 5일 오후 중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과 김민철 의원을 각각 만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속한 도입요청',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지방의회 제도 개선 관련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함께 제출해 현행 정부안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포함

한 지방의회의 최대 역점사항"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지방의회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3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후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박상찬기자

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 배상법안 대표발의

약 70년 전 국가폭력의 희생자들, 지금이라도 배상해야

29일 김병욱 의원은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1998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 행위였음이 인정되었으나, 산청·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됐다.

마침내 1996년 산청·함양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정몽호기자

참극이 발생한지 무려 53년이 지난 2004년 3월에는 제16대 국회에서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좌절됐다.

이후 제17대부터 제20대까지 거창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또는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다 오늘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병욱의원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도리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사건에 대해 약 7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창·산청·함양사건은 국군 제11사단이라는 동일한 부대에 의해 동일한 이유로 자행된 역사적 참극이기 때문에 배상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43%에 불과

전체 관리연장 4151km 중 조명설치구간 1798km로 43.3%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에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0개 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4,151km 중 조명설치구간은 43.3%인 1,798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56.7%인 2,353km이다. 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30개 노선 중 17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호남선의지선, 서천공주선, 서해안선은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2,600건, 야간에는 1,6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225명, 야간에 272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87, 야간에는 0.160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이는 사고건수당 사망자가 주간에 11.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야간에는 6.2건당 1명이 사망하는 사고위험지수를 보였다. 주요사고원인별 조명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조명시설이 없거나 미작동한 구간에서 졸음으로 인한 치사율은 0.224, 주시태만 0.255로 조명시설이 작동하는 구간에서 졸음 치사율 0.191, 주시태만 0.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정부와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매년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시·도 교육청별 지원사업 편차 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울산·충북·경북이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의 직접적인 수당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거주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사업규모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의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이들과 사회적 인식, 금전적 혜택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거주지와 학교 울타리의 유무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고 했다.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난 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성가족부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력 요청의 주체이자 주무부처로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서만 지원사업을 수행 중

이동원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임영식 / 부회장 박상관 / 사장 박부석 / 편집국장: 최재은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naver.com

2009년 4월 12일 창간	경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규정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퍼 니 언 부: 내선 (118)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대표전화 : 1899-9659
 편집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낙연 대표와 '시민의발' 버스기사 격려 방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낙연 대표, 3일 '필수노동자' 직군 버스기사 찾아 의견청취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관내 버스회사를 찾아 '필수노동자' 버스기사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원오 구청장과 이낙연 당대표의 이번 방문은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뒤,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앞서 구는 지난달 1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재난 상황에도 사회의 필수적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 노동을 하는 돌봄·보건·의료·물류업종 종사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관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표한 바 있다.

'필수노동자'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원오 구청장과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은 3일 오후 성동구에 위치한 대진운수를 찾아 버스기사들의 업무 현장을 살펴봤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낙연 당대표 일행에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광역·중앙정부 차원의 동참을 역설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만으로는 모든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힘든 데다, 필수노동자 일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 구청장과 이 대표 일행은 코로나19와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기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필수노동자의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은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를 시작한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벤치마킹해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가 첫 발을 댄 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광역·중앙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낙연 당대표의 방문으로 필수노동자 정책 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주목된다.

최만식기자

구로구, '걷기 구로 짝꿍' 챌린지 함께해요

두 차례로 나눠 이달 1차, 다음달 2차 진행... 스마트폰 앱 활용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 활동이 줄어든 주민들을 위해 '걷기 구로 짝꿍' 챌린지를 펼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해 '걷기 구로 짝꿍' 챌린지를 마련해 핸드폰 앱을 통한 언택트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걷기 구로 짝꿍' 챌린지는 두 차례로 나눠 1차는 이달, 2차는 다음달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로주민은 G밸리보건지소에 전화로 신청 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로 전송되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워크온 앱을 다운 받아 '걷기 구로 짝꿍'에 가입하면 걷기양이 자동 측정된다.

이름을 설정할 때는 '홍길동/준향이' 형식으로 짝꿍의 이름을 함께 적는다.

참여자들 걷기 편한 장소를 자유롭게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구로구는 회차별로 챌린지가 마무리되면 관내 멋진 곳에서 짝꿍과 함께 찍은 사진에 '베스트 포토 짝꿍', 걷게 된 동기·좋았던 점·후기 등 우수 사연에 '베스트 걷기사연 짝꿍', 짝꿍과 합산한 나이가 가장 많은 커플에게 '베스트 최고참 짝꿍', 걸음 수가 가장 많은 커플에게 '베스트 장거리걷기 짝꿍' 등 '우수 짝꿍'을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로주민은 G밸리보건지소에 전화로 신청 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로 전송되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워크온 앱을 다운 받아 '걷기 구로 짝꿍'에 가입하면 걷기양이 자동 측정된다.

이름을 설정할 때는 '홍길동/준향이' 형식으로 짝꿍의 이름을 함께 적는다.

구로구 관계자는 "건강도 지키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G밸리보건지소 언택트 신체활동 프로그램

걷기구로짝꿍

비대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세요!

참여대상:	걷기를 사랑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기간:	(1차) 10월 1일 ~ 10월 28일 (2차) 11월 1일 ~ 11월 28일
참여장소:	어디서든(집안, 안양천, 구로 올레길 등)
참여방법:	1. 전화접수 2. 참가신청서작성 3.워크온 가입 4. I. 걷기구로짝꿍 검색 후, 가입
이벤트:	이벤트 내용에 따라 커플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 (워크온게시판 참조)
결과발표:	(1차) 11월 5일(목) (2차) 12월 3일(목)
문의:	02-860-8174

G밸리보건지소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부산만의 할인·경품 쏟아진다

소비진작 지원 6개 지역행사 연계 선정, 국비 3억3천만원 확보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민간 주도의 '코리아세일 페스타' 행사 기간 중 지자체 주관의 소비진작 지원행사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3천만원을 지원받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위축된 소비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손을 잡고 15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전국 할인행사다.

가전,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 분야 대기업은 물론,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철저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온라인 특판전을 비롯해 현장 행사도 병행한다.

부산시는 민간 주도의 코리아세일 페스타뿐만 아니라 지역상품 판매, 소비, 관광 등의 부산만의 콘텐츠를 결합해 다채로운 연계행사를 통해 소비 불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원받은 국비를 활용해 소비경기 진작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경품 및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판촉 프로모션도 15일간 릴레이

이식으로 진행해 참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내수진작 차원에서 정부에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로 시작해 2016~2017년 쇼핑, 관광, 문화, 축제를 통합한 '코리아세일 페스타'로 확대했으며 2019년부터 민간업체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부산지역에서는 부산국제수산 EXPO, 부산우수제품 쇼룸, 특판전, 항공여행 마켓, 부산기업 온라인 특판전, 일부와 랜선 페스티벌, 부산신발브랜드 판매점 '파도블' 오픈 행사 등을 통해 부산지역 특화상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중의 행사에는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경품 및 할인쿠폰 지원이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소비심리 촉진의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회복의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침체한 지역경제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제활력을 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방역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KOREA'SaleFESTA
대한민국 쇼핑주간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힘내요 대한민국

11.01 - 11.15

www.korosaifesta.kr

곤충과 함께하는 23일간의 여행, 도 농기원, '온라인 경기곤충페스티벌' 개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INSECT FESTIVAL

온라인 경기곤충페스티벌

2020. 10. 8 - 10. 30

blog.naver.com/ggbug20

경기곤충사생대회, 경기곤충사진공모전, 곤충인문학교실, 곤충온라인전시, 곤충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

경기도농업기술원이 10월 8일부터 30일까지 가정에서 곤충과 가까워질 수 있는 '2020 온라인 경기곤충페스티벌'을 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경기곤충 사생대회, 경기곤충 사진공모전, 경기곤충 과학교실, 곤충 온라인전시, 곤충쇼핑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경기곤충 사생대회'는 도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곤충을 주제로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 창의성, 순수성, 개성 등의 실력을 겨룬다.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 등 상장과 상금, 상품 등이 주어진다.

'경기곤충 사진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진 경연대회다. 누구나 곤충과 자연, 사람과 관련된 사진을 찍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상장·상금·상품을 제공한다. '경기곤충 과학교실'은 유치원생들이 가정에서 곤충을 키우며 어릴 때부터 곤충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 신청한 도내 유치원생 200명은 애완곤충 암수 각 1마리씩과 교재를 받아 동영상 교육을 통해 곤충 사육을 체험하고 흥미와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곤충 온라인전시'에서는 곤충웹툰, 곤충일러스트, 곤충세밀화, 희귀 곤충 전시 등을 통해 가정에서 쉽고 편하게 다양한 곤충을 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곤충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곤충특가전, 아이들이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곤충을 자랑하는 이벤트 '곤친소' 등도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온라인 페스티벌이 곤충에 대한 소비자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곤충을 활용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경산시, 2020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교육 실시

경산시민 30여명, 마을평생학습 리더 교육

경산시에서는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이끌어 나갈 주민리더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 경산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오는 6일부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교육은 경산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10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2회에 걸쳐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10회차로 진행되며 교육 수료자들은 시험을 치러 마을평생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과정으로는 대구대학교 김남선 교수의 평생교육 및 마을평생교

육지도자의 이해를 시작으로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마을평생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법, 지도자의 역량과 비전, 마을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번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지역인재육성으로 재능나눔 봉사 활동 참여는 물론 마을평생지도자교육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응원해요~ 광명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윤지연)는 생애주기별봉사단(YGT봉사단, 4050그린나래봉사단)과 함께 광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응원캠페인을 펼쳤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2017년부터 경기도지원사업인 생명사랑프로젝트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7 광명소방서 / 2018 관내초등학교, 시립어린이집 / 2019 대우건설과 협업하여 생명나눔·돌봄·지킴·살림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4050그린나래봉사단은 작년 광명 7동 지역 재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우건설 직원과 시민이 직접 현장 케이트에 나무소 베풀어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4050그린나래봉사단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캘라그라피로 그린 응원부채와 간식키트를 제작하여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하시는 광명시장인원 협동조합 이사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객



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추석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응원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캠페인은 4050그린나래봉사단이 직접 만든 상호명이 적힌 POP안내판 전달과 광명사랑화폐 홍보로 상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체온측정을 하였으며 각 상점 안내판 설치 시 성인과 청소년이 2인 1조로 동행하여 상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다.

이항기 광명시장상점가진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객

이 줄고 있어,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서, 상인들의 따뜻한 정과 전통시장의 즐거운 경험을 체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4050그린나래봉사단 우수미 단장은 “앞으로 우리 단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광명시자원봉사센터 (☎ 2687-1365,1465)

전순희/기자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치유 여행 문경달빛사랑여행

안전과 소규모 맞춤형으로 야간관광의 새 기준 제시

문경시는 지난 26일 문경달빛사랑여행을 마지막으로 문경의 대표 야간여행상품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문경달빛사랑여행은 지난 2005년부터 운영돼온 문경의 대표 야간관광상품으로 올해는 7월 18일 첫 번째 여행을 시작으로 8월 22일과 9월 26일에 걸쳐 총 3회 운영했다.

당초 4회 운영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회는 쉬어가기도 했다.

코로나시대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에게 고즈넉하고 탁 트인 야외에서 서로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게 이루어진 여행은 코로나블루를 잠시나마 잊어볼 수 있었던 행사였다.

해마다 인기가 많아 항상 조기에 예약이 마감됐던 여행상품이었지만 올해는 거리두기 규칙과 방역기준을 지키기 위해 회당 50명으로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소규모 맞춤형 상품으로 재편성했다.

가족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거리를 지키며 야간 트레킹을 하고 체험이나 공연시간에도 테이블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방역과 안전에 중점을 뒀다.또한 야간의 감성을 공유하기 위해 달 포토존과 숲 속 공연, 특

색 있는 체험 등 상품구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준을 깨고 소규모 야간여행은 새로운 관광상품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는 가운데

방역과 안전기준을 지키면서도 참여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소규모 맞춤형으로 상품을 구성했다”며 “문경의 자연이 주는 치유력과 감성적인 체험 상품 등이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원형/기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정책창안대회 참가자 모집

광진구, 제3회 아동·청소년 정책창안대회
개최...10월 23일까지 참가자 모집

광진구가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자 '제3회 광진구 아동·청소년 정책창안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창안대회는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및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자격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개인 또는 3~6명으로 구성된 단체로도 참여 가능하다.

주제는 본인이 평소 느꼈던 사회 문제, 아동·청소년 정책, 코로나19 관련 정책 등 광진구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으로 교육, 문화, 안전, 환경, 교통, 복지 등 분야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예선은 따로 진행되지 않으며 참가자들은 발표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아동·청소년은 10월 2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작한 발표영상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11월 중 발표되며 최우수상 1개, 우수상 1개, 장려상 2개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

해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

시길 바라고 채택된 우수 제안들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말했다.

강성원/기자

강남구, 위기 소상공인에 임차료 140만원 현금 지급

6.30 이전 창업한 연매출 5억원 미만 대상
... 10.5~30 이메일 또는 5부제 방문 접수

‘기본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장당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했으나 매달 임차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6월 30일 이전 관내 창업자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받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내려 받고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로 하거나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와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강남구 휴업 지원금 지원업체에는 차액 지원한

다.한편 구는 올 들어 9월까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236개 업체에 318억6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 데 이어 소형 음식점 980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황규석/기자

창원시 “주남저수지 코스모스길 걸으며 가을 만끽하세요”

창원시는 추석 연휴인 닷새동안 주남저수지에 가족 단위, 연인 등 4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고향 방문도 자제한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수지를 둘러싼 코스모스와 갈대 길을 걸으며 가을 분위기를 만끽했다.

시는 올해 7월 주남저수지 생태탐방로 1.3km 구간을 총면적 1만㎡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다.

제조제를 살포하지 않아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울레 잣은 비로 인해 코스모스 관리가 매우 어려웠지만 김매기를 통해 일일이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성스런 노력 끝에 예년과 다름없이 화려한 주남저수지 코스모스 꽃밭을 볼 수 있다.

매년 수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가

을철 필수 탐방 코스인 주남저수지 코스모스 꽃길은 물억새의 은빛 물결과 더해져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번 주말 만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용주 창원시 주남저수지과장은 “연휴 기간 주남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로 5곳에 생태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발원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유지로 관광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며 “가족·연인과 함께 이번 주말 만개한 코스모스 꽃길을 걸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몽호/기자



경남도,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중점 확인

경상남도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8주간이며 점검대상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 51개소이다. 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며 매립시설 침출수와 소각시설 소각재를 채취·분석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및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가 안전하게 폐기물 처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 단속·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비정상 가동, 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지도·점검해 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시 문제점 발굴 및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등을 발굴·전파해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광기자



임실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개반 6명, 특별기동단속반 운영,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임실군이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2

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며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김학원 산림공원과장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훈련도 실제처럼’...서구, 수질오염사고 대비 가상 방제훈련 실시



인천 서구는 하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조동조치 능력을 함양하고자 오류동 검단천에서 가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서구에는 경인아라뱃길,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검단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각종 유류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다수 위치해 매년 하천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2018년 5건, 2019년 4건, 특히 올해에는 현재까지 4건이 발생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훈련은 검단천 하류에서 원

인불명의 유류가 하천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 사고 현장 수습 및 조동조치 중심의 기동 훈련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사고 접수 후 유관기관 상황전파와 오염펜스 설치 및 유출차포, 유처리제 살포 등 각종 방제장비를 이용한 조동 방제조치, 사고 원인 조사 순으로 이뤄졌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효율적인 방제요령을 습득해 실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양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향후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은행악취 끔찍 마 부산시,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악취 유발·도시미관 저해하는 은행 조기 채취 위해 10.5~16. 열매 집중 채취 기간 운영

부산시가 매년 가을이면 자연 낙과로 악취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조기 채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을마다 도심에 노란빛으로 물들이는 은행나무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해 가로수로 널리 식재되는 대표적인 가로수지만 열매에서 악취를 유발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다. 부산지역 전체 가로수 16만5천본 가운데 은행나무는 3만4천본으로 20.9%를 차지하며 그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약 1만본으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 가운데 29.6%를 차지한다. 부산시는 구·군별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열매가 자연 낙과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수확에 나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늘부터 16일까지를 집중

채취 기간으로 지정해 주요 간선 대로변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 주변, 상가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 채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직접 수거도 가능하다. 이렇게 수확한 열매는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의 중금속 검사를 거쳐 식용 적합 판정을 받은 수확물에 한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된다. 은행에는 신경조직성분인 레시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신경쇠약, 기침, 고혈압, 정신 피로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글로불린을 비롯한 단백질, 인, 철분 등이 들어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렇게 검사를 통과한 은행나무 열매 약 7천20kg을 경로당 등 복지기관에 기증한 바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를 조기에 채취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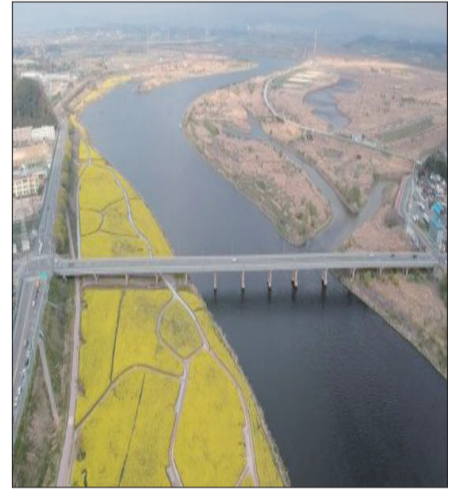
윤광남대기자

나주시, 영산대교 ‘높이3m이상 차량’ 통행제한

전라남도 나주시는 영산대교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량 보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높이 3m 이상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고속·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차량 등 높이 3m 이상 차량은 영산대교 통행이 제한된다. 영강사거리를 경유해 영산대교를 건넌 17개 시내버스 노선은 영산교 방면으로 우회 운행한다. 변경된 노선은 ‘영강사거리-영산교-선창길-석산길-울정-영산포터미널’이며 높이 3m이인 순환버스 노선은 기존과 동일하다.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된 교량으로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 지역을 잇는 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백년 가까운 세월 속 교량 노후화로 지난 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그간 하중 20.1t이하, 속도 50km/h이하로 통행 제한을 실시해왔으나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3m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영산대교 통행 제한으로 영산교 구간 교통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등 교통체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먼저 ‘영산포로263 ~ 영산포로289’ 1개 구간 훌짜제 주·정차 제도를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영산포로263 ~ 영산포로252’와 ‘영산포 흥어의 거리 ~ 선창길’ 2개 구간도 교통지도요원 배치, 무인 CCTV설치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버스 노선 조정 및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나주철도공원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 시청 누리집·SNS 홍보물 게시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을 기울이라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산대교 통행차량 높이 제한에 따른 대형차량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자 등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갈 것”이라며 “보다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이번 조치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339-8822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

서울 용산구가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벌인다. 2020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세계음식문화거리 일대에서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원내용은 컨설팅과 시설개선, 자금지원으로 나뉜다.

컨설팅은 마케팅과 홍보, 매장관리·연출, 메뉴개발·구성, 손익관리, 법률·세무상담을 아우른다.

분야별 전문가가 매장을 방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준다.

업체당 2회까지 지원되며 비용은 무료다. 시설개선은 개업 후 6개월 이상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 이내이며 간판, 어닝, 전열장치, 인테리어, 식탁·의자, 화장실,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난방시설 등을 교체·정비할 수 있다. 자금지원은 최대 5000만원까지 이뤄진다.

신청 업소에 한해 보증재단이 현장실사를 진행,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면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8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이태원관광특구 연합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재단에서 선정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15개 업체, 시설개선은 20개 업체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지난 5월 클럽 발코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태원 전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세계음식거리가 심각하다"며 "이번 활성화사업이 상권 회복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자체 재원을 마련,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급하고 있다. 9월 25일까지 4086개 업체가 지원 신청을 했으며 이 중 구는 2571개 업체에 현금 18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1000여개 업체도 심사가 끝나는 즉시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구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용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

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장형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힘을 모은다"며 "침체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활력이 용산구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벽화 조성



도봉구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 벽화를 조성하고 지난 9월 28일 방학천 일원에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벽화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앞서 구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방학천 양벽 57m 구간에 단청부조기법으로 '천년 매화도'를 조성했다. 이번 작품은 초년기, 유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는 사람의

일대기를 매화나무가 점차 고목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표현해 인생과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냈다.

또 매화꽃이 조화롭게 흠날리는 모습으로 구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화합하는 모습을 담았다.

특히 벽화와 함께 조명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도 벽화를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구는 방학천 양벽 보강 공사가 완료된 구

간에 순차적으로 벽화를 확대 조성해 구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벽화로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방학천문화예술거리 활성화와 지역 명소화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안산시문화상·최용신봉사상 수상자 선정

안산시문화상
고운기·한태일·배운주·최창규·전구표,
최용신 봉사상 주기덕 선정

안산시는 지역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2020년도 '제34회 안산시문화상'과 '제31회 최용신봉사상'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5개 부문의 안산시문화상 5명과 최용신봉사상 1명을 각각 선정했다. 안산시문화상은 학술 고운기 예술 한태일 교육 배운주 지역사회개발 최창규 체육 전구표 등이 선정됐으며 최용신봉사상은 주기덕 씨가 선정됐다.

안산시문화상 학술 부문 수상자인 고운기 교수는 현재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안산시 단원학술 심포지엄, 동화책 다문화언어 번역사업 등에 참여해 안산시 콘텐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 부문 한태일 배우는 1965년에 데뷔한 원로배우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적이 있으며 안산예총 영화인협회 소속으로 안산시 문화예술 발

전을 위해 앞장서 후배 예술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교육부문 수상자인 배운주 씨는 현재 정재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교육현장에서 국제교류활동·청소년단체 활동지도 등을 통해 안산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사회개발부문 수상자인 최창규 씨는 안산시협치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시민참여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시민 공감 정책 발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체육부문 수상자는 전구표 안산시 육상연맹 회장으로 육상에 대한 열정과 지원으로 안산시 육상 활성화

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의 대표적 체육행사인 '안산마라톤대회'를 다년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민 건강 증진에 공헌했다.

최용신봉사상 수상자 주기덕 씨는 오륙회봉사단을 비롯한 여러 자원봉사 단체에서 두루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에 급배식 봉사 등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우수한 안산시 인재들에 대한 추천이 늘어나 안산시 문화상과 최용신봉사상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적이 우수한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서종면 수입3리, '벽계천 다자연형 계곡하천 만들기 운동본부'상가 방역 활동 전개

서종면 수입3리에서는 지난 7월 29일 '벽계천 다자연형 계곡하천 만들기 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다.

'벽계천 다자연형 계곡하천 만들기 운동본부'는 양평주민이 주도하는 계곡하천 환경개선 사업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창립했으며 다자연형 계곡·하천이란 하천 주변의 곤충과 식물 등 여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하천으로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하천을 뜻한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추석을 맞아 상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벽계천 다자연형 계곡하천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청정, 안심, 방역존



을 위해 회원을 중심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벽계천 주변 상가와 마을회관 등에 방역활동을 펼쳐 나갔다.

조희승 위원장은 "앞으로도 환경인식개선 캠페인과 환경정화활동, 벽계천 사진공모전 등의 실시와

다습기 종패방류사업, 벽계구곡 도보 대장정, 토종 물고기 방류사업 등의 활발한 사업을 펼쳐 쾌적하고 깨끗한 벽계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대구 세트럼 대원 칸타빌

구로구, 서울시 자치구 유일 '최우수상'

공시제 부문 수상... 고용노동부 각종 평가에서 11년 연속 수상 '대기록' 세워

구로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구로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각종 일자리 평가에서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0년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지역일자리 정책 브랜드사업 부문 우수상, 종합대책 부문 장려상을 시작으로 2011년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2012년 전국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 2013년 전국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 우수, 2014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평가 우수,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사회적경제 부문 최우수, 2016년과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특별상과 우수상, 2018년 목표공시제 부문 특별상,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 근로자수, 자치단체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7개 평가군으로 분류해 평가를 실시했다. 일자리 창출 계획·집행·성과 등 3개 지표에 대해 1차 서면심사, 2차 화상 면접심사로 나눠 진행했으며 '공시제'와 '우수사업' 2개 부

문에서 수상 자치단체들을 선정했다. 구로구는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가 속한 '바'군에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구로구는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0년 전담 부서인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했다. 2017년 7월에는 청년 취업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지원과에 청년지원팀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채용박람회·해의 수출상담회, 맞춤형 취업교육,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목표치 1만 3,300개보다 많은 1만 3,752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이번 평가에서 구로구는 청년 취업활동 공간인 '청년이룸'과 'G밸리 고용환경 및 일자리 생태계 개선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청년이룸'은 구로구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천왕역사 지하 1층에 조성한 일자리 토털플랫폼이다. 4차산업 관련 IT교육, 취업스터디, 기업 연계 활동,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창업, 청년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G밸리 고용환경 및 일자리 생태계 개선사업'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기업들의 고용환경과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청과 유관 기관들이 민·관 협의



체를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 캠페인,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고 근로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구는 기업 수요에 따라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실, 중장년 대상 경비원, 택시·마을버스 운전기사 양성 과정, 중장년 재취업 토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청년 취업을 위해 캠퍼스투어 조성, 청년일자리 카페,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중소기업 체험 등의 사업들도 전개했다. 올해 구로구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하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고용유지 기업을 지원한다. 대량 실직으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고 없는 도시'는 기업이 고용유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구청이 고용보험 기금 지원, 점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매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원미청정구역, 청년 주거문제 해결사 역할 '톡톡'

매주 금요일 온라인 주거멘토링 '청년의 첫 집 구하기' 진행

부천청년센터 원미청정구역에서 오는 10월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온라인 주거 멘토링 '청년의 첫 집 구하기'를 10주간 진행한다. 10월 신규 프로그램인 '청년의 첫 집 구하기'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 소개에서 임대계약 실무, 내 집 장만을 위한 경매까지 청년을 위한 실속 주거정보를 제공한다. 원미청정구역은 12월까지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미청정구역에는 청년의 취업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평일에는 면접 교육반 취업 교육반을 운영한다. 주간에 시간이 없는 청년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인 금융멘토링 - 청년 금융생활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취업캠프도 청년의 취업 고민을 해결해준다. 청년의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년들은 취업 및 심리상담 너와 나 토크와 금융 상담 금융멘토링-내 집장담 멘토링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프로그램은 원하는 시간에 사전 신청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9월 접수한 실무멘토링 부트캠프 '온라인 인터넷(회계)'는 많은 청년들의 지원 아래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청년들의 열띤 성원에 10월

에는 8개의 다양한 직무 인턴체험이 부천시 청년에게 찾아가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미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장기불황이 지속되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주거멘토링으로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 청년의 취창업뿐만 아니라 생활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은평, 방구석 온라인 환경교육 운영

비대면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 유튜브 통해 게시

서울 은평구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 대상 비대면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은평구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교육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은평구 비대면 온라인 환경교육은 환경 전문 강사가 출연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코로나19와 전염병 등 환경 이슈에 대해 강의식으로 알려주는 이러닝 방식과 크리에이터 활용 등 최신 영상 트렌드를 반영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바이럴 영상 방식으로 제작했다.

온라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총 9개로 기후변화 이야기 시리즈가 9월 21일부터 게시됐으며 미세먼지 이야기 알쓸신잡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은평 1인 크리에이터 활용 일상 속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이 순차적으로 은평구청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스마트폰과 PC로 은평구청 유튜브를 검색해 업로드된 환경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주민들을 위해서 집에서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을 제작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시청해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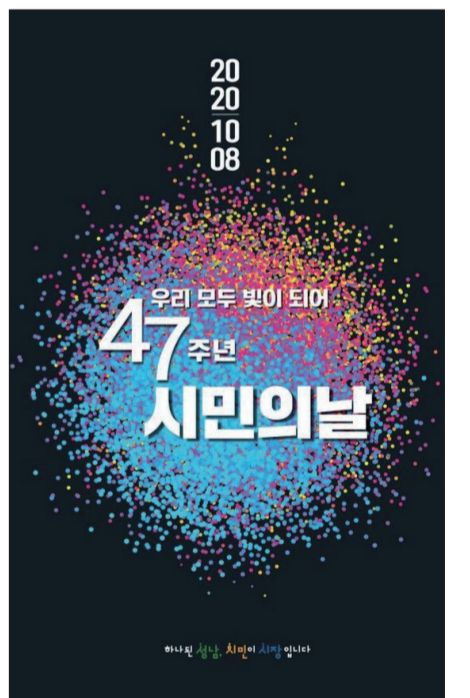


성남시 '제47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유튜브 '성남TV'로 송출...시민 300명 출연하는 '밀리언 타운' 뮤비도 제작

'제47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10월 8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성남TV'를 통해 사전 녹화한 시민의 날 기념 영상을 송출한다. 직장인, 청년, 신혼부부, 상인,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등장해 시민의 날을 자축하고 성남의 미래를 응원한다. 성남시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자동차, 드론 시합 비행장,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 청년지원센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등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사는 성남을 자랑한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출연해 제47주년 성남시민의 날을 축하한다.

성남시 모범시민상 수상자 5명, 경기도민상 8명, 제28회 문화상 수상자 4명도 영상으로 소개한다. 제47주년 성남시민의 날을 기념해 만든 '밀리언 타운' 뮤직비디오 영상 송출도 이어진다. 경쾌한 댄스풍의 배경음악 속에 시민 300여명이 출연해 신나는 율동과 춤,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제작한 뮤직비디오다. 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개척 이래 처음 언택트 방식의 성남시민의 날 행사를 열게 됐다"며 "100만 시민이 함께하는 온라인 기념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창원시립마산박물관, 현동 가야유물 특별전 개최

가야의 명품도기 전시 비롯 다채로운 행사 마련

창원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두 달간 창원시립마산박물관에서 국립김해박물관과 공동으로 '가야의 또 다른 항구, 현동'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현동유적의 발굴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창원지역의 가야사를 조사, 연구, 복원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덕동마을 중심으로 한 가야 여러 나라는 물론 왜와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의 대표 유물인 당시의 해상교역을 보여주는 배도양토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고 명품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체에 나타 머리가 붉은 특이한 토기, 가야의 제철 관련 자료,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각 가야의 토기 등 230여 점을 전시한다.

특히 2019년 삼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현동유적 출토 유물들을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수장고형 전시 연출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압도적인 분위기 연출과 당시 지배자의 무덤 복원을 통한 현장감 있고 몰입도 높은 전시를 선보인다.

특별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체험행사, 특별강연, 시연행사, 음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체험행사는 특별전 관람 미션 체계가 있는데 특별전 관람 후 퀴즈를 풀어서 퍼즐을 완성하는 체험을 통해 관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미션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한 성취감과 함께 재미 요소까지 더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전의 대표 유물인 배모양 토기와 낙타 모양 토기를 모티브로 제작한 3D입체퍼즐체험은 흠여져 있는 토기 조각을 끼워 맞추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재 복원 전문가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원지역의 가야문화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현동유적 전문가를 초청해 전시기간 중 격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총 4회 동안 시민들 대상으로 현동유적을 중심으로 발굴성과, 교류관계, 가야토기 등에 대해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며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창동예술촌의 활성화에 기

여하기 위해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창동예술촌과 함께하는 가야토기 체험공방을 운영한다. 전시기간 중 격주 토요일에 총 4회 동안 특별전 전시유물을 모티브로 도자, 가죽, 판화 등 다양한 공예체험이 가능하고 시민들 대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따른 시간대별 예약접수를 받아 무료로 진행한다. 더불어, 관람객들이 가야문화를 더욱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3D프린팅기술로 복원되는 가야 상형토기 시연행사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마련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24일 오후 4시 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창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를 개최한다. 끝으로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가야토기와 연계해 도자의 역사성과 전통적인 우리 도자의 멋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자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남치성 도예작가 초청 전시회 '빛다'를 특별전 기간에 관람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현동유적에서 출토한 다양한 가야 유물을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회로 의미가 있으며 가야문화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창원시, 빈산소수괴 피해 어가 4억 2천만원 규모 지원 확정

피해 양식어가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 지급

창원시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해역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양식생물 대량폐사 피해를 본 굴, 홍합, 미더덕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4억2천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번 복구 규모는 9월 18일까지 창원시가 제출한 복구 계획 건에 대해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피해복구 대상 어가는 모두 96어가이며 피해복구비 편성은 국비 2.9억원, 도비 0.5억원, 시비 0.8억원, 용자 2.3억원, 자부담 1.5억원이다. 피해복구비는 피해 양식장에 굴, 홍합, 미더덕 수산생물 인식비 및 피해시설 철거비로 지원된다. 창원시는 신속 피해복구를 위해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긴급 확보했으며 피해 어가 중 44어가는 영여자금 상환 연기 및 이차 감면 26.2억원, 12어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피해는 지난 6월 3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로 홍합, 굴, 미더덕 등의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해 양식어장 399ha, 13억 3천만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확정된 피해복구비는 입식신고를 한 어가에 한정된 것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정에서 정한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업인도 실제 피해가 확인된 어업재해어장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확보했다"며 "피해 어가에 개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부산시, '디지털배움터' 10월 교육생 모집

비대면 사회 대비 화상회의 운용법 및 전자출입명부 활용법 등 교육

부산시는 비대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화상회의 운용법 및 전자출입명부 활용법 등을 알려주는 디지털배움터의 10월 교육생을 모집한다. '디지털배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비대면화되면서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누구든지 쉽게 찾아와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해 만든 디지털 교육장이다.

시는 디지털배움터에 강사 2인과 봉사자 2인을 배치하고 디지털 헬프데스크를 마련해 교육 및 실시간 디지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디지털배움터의 10월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중급, 특별교육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방식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온라인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다. 허남식 부산시 기획관은 "디지털 격차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디지털 기술의

교육 목적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화상회의 운용법 및 전자출입명부 활용법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명: 비대면 화상회의 운용법, 전자출입명부 활용법 등 교육대상: 부산광역시 시민이면 누구나 교육신청지/수료지: 주민센터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 교육 추진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남해군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안전성 이상무"

매월 잔류농약 및 중금속 성분 안전성 검사 실시

남해군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학교급식에 공급되기 전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남해군과 용역을 맺은 안전성분석 전문기관에서 매월 현장에서 생산자 임회 하 시료를 직접 채취 수거해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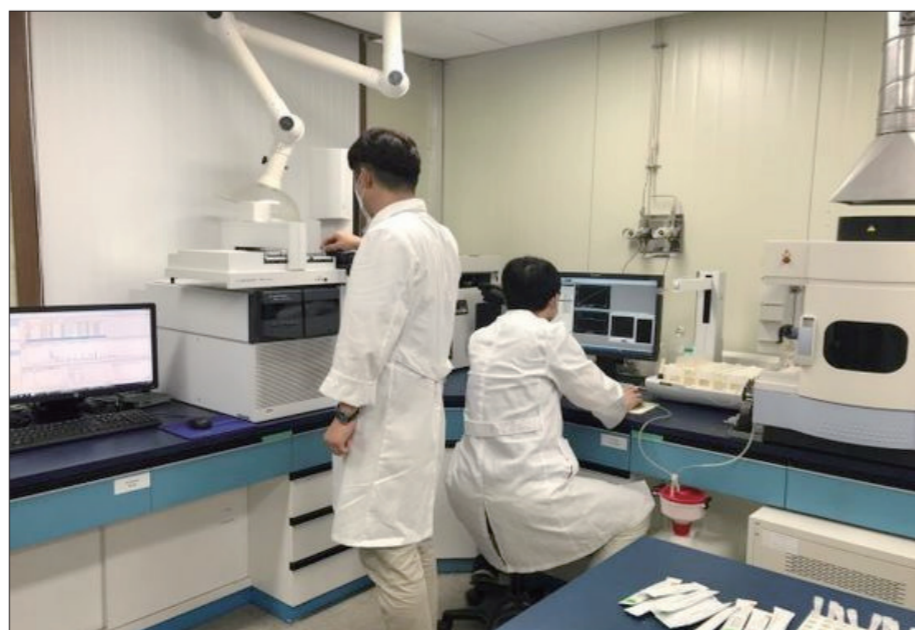
분석항목은 잔류농약 320성분을 포함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 2성분이다. 분석 결과 기준 초과 품목은 학교 급식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하 농가에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또한 남해교육지원청과 협조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수산물, 지역산 가공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수요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는 아

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으로 새롭게 출발

진주의 보석같이 귀한 명품브랜드 '진주드림'

진주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1위도시 진주의 위상에 걸맞는 대표 브랜드를 개발해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마케팅 전략으로 진주시 농산물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계획했다.

시는 2019년 5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에 착수해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추진사항을 알리고 다양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진주드림'을 네이밍으로 결정했다. '진주드림'은 "진주의 보석같이 귀한 농산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드림'은 영문의 꿈을 뜻하는 dream과 발음이 같아 꿈을 담아 드린다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 심평은 "농부의 표정을 가득 담아 드린다"는 의미를 표현해 디자인했으며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 브랜드 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2019년 12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다.

또한, 체계적인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0년 6월에는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브랜드 시책을 갖춘 단감, 배, 딸기, 파프리카 등 11개 품목, 1000여 농가에 대해 브랜드 사용 승인을 했다. 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포장재 및 선별비를 지원해 고품질 농산물 유통으로 소비자에게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은 '진주드림'의 이름으로 햇배 13.5톤을 뉴질랜드로 수출했다.

수출된 배는 조생종인 원황 품종으로 '진주드림'의 이름으로 처음 해외시장에 진출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딸기,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 수출 분야에서도 농협과 영농법인인 '진주드림' 공동브랜드로 해외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주시도 각종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농산물 시장도 단감, 고추, 애호박, 딸기, 파프리카 등 시설하우스 농산물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있으며 10월

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전국 어디서나 '진주드림' 명품브랜드 농산물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8월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진주드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언론매체 홍보를 시작으로 버스·택시 외부광고 대도시 중심 터미널, 지하철의 광고탑을 활용한 대외 동영상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홍보물 제작,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 등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의 가치를 높이고 전국 및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명품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광기자



사천시보건소, 코로나우울 정신헌장·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사천시보건소는 사천읍시장과 삼전포종합시장 및 용궁수산시장에서 코로나우울 정신헌장·자살예방 캠페인을 9월 23일 24일 양일간 실시했다.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과 걱정, 우울, 스트레스 등 다양한 감정 변화의 경험으로 심리적 피로도와 정서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감염병 스트레스 반응과 자살위험 신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을 홍보하고자 실시됐다.

행사 내용으로는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우울증 자가진단, 정신헌장을 지키는 10가지 수칙 등 정신헌장 강화를 위한 안내 리플릿 및 홍보



물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지원 도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천시보건소는 앞으로도 정신헌장 심리방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

살예방·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정신헌장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추석 연휴 문경새재도립공원 8만여명 방문

엔택트 관광지 입소문으로 인산인해

문경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8만여명의 관광객이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8만여명의 관광객이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은 것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적합한 엔택트 힐링 관광지 입소문이 낫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장 전후 모든 시설물을 방역하고 전동차, 유모차 등 손길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소독한다.

실내시설이나 밀집 우려가 있는 시설의 입장객은 발열체크와 대인소독기 통과 후 입장이 가능하며 인근상자 및 관광객 대상의 현장 계도 활동도 꾸준히 전개 중이다.

또한 시는 9월 1일부터 전담 인력 3명을 보충해 관광지 안내와 방역에 집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관

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요 탐방로와 시설물을 점검했으며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방역과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했다.

연휴 전 쾌적한 공원을 위해 탐방로와 하천변 환경정비를 완료했고 연휴기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직원들이 주차관리와 차량 통행을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4월 개장한 미로공원은 약 4만 3천여명의 누적 입장객을 돌파하며 문경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박홍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방문객의 마스크착용과 방역 협조에 감사드리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위험 없는 안전한 명품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김천시, 2020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김천시 일자리정책, 전국 '최우수'...1억원 인센티브

김천시의 시정방침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시 건설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전국에서 인정을 받았다.

김천시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58점,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부문 15점으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김천시는 2019년 공통일자리 실적도 15세 이상 64세이하의 고용률 65.5%, 15세이상 취업자수 7만3천명, 고용보험피보험자수 42,847명으로 각각 당초 목표대비 100% 초과 달성했다.

양현석/기자

안동 문화도시 플랫폼 홈페이지 방문자수 20만명 돌파

안동 문화·예술 분야 지역 활동가, 단체 활동 한눈에 "쏘옥"

안동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정보와 포트폴리오를 공유할 수 있는 '안동 문화도시 플랫폼' 홈페이지가 올 6월에 개설되어 3개월 만에 방문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안동축제관광재단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이번 홈페이지는 지역 시민들의 온라인 문화정보 플랫폼으로 이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 주 기능은 안동시의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행사, 문화예술가 포트폴리오, 지역 문화예술 단체·동아리 소개, 문화도시사업, 문화도시 거버넌스 활동 공유방, 문화시설 및 문화관광 관련 정보 링크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시각예술, 문학, 영상,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가와 단체에서 260여 건이 넘는 게시물을 업로드 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안동 예술가들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누구나 수시로 활동사항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지역 예술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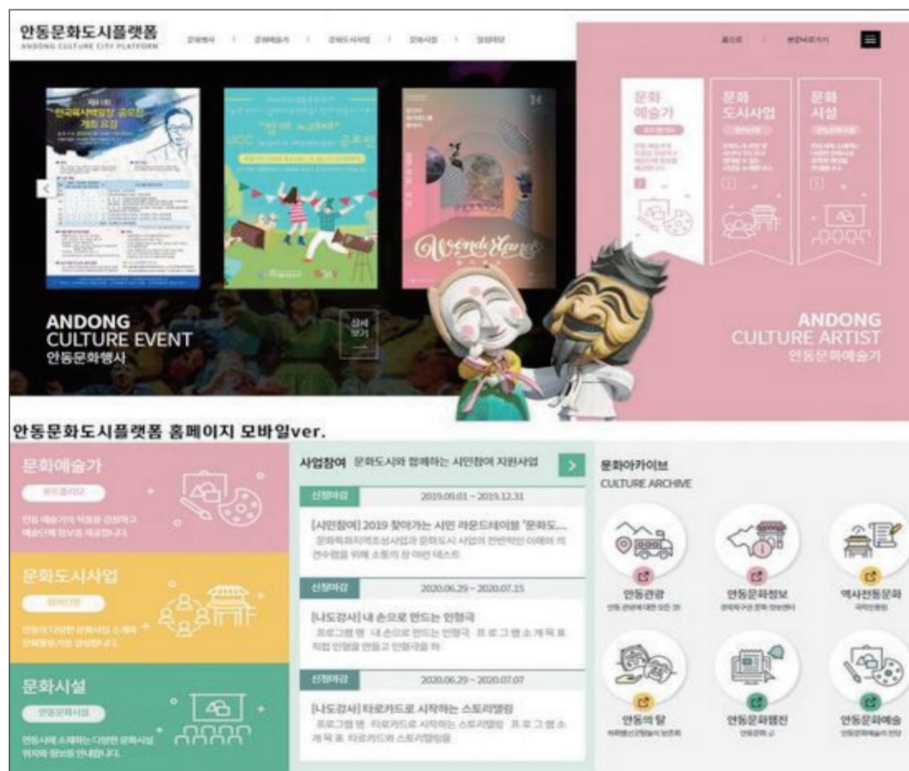
한편 홈페이지에는 문화도시 사업 분야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고

여기서 시민 참여 지원사업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 PC, 스마트 폰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화행사 정보 포트폴리오 업로드 및 수정 동아리 업로드 요청 문화도시사업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안동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플랫폼 공유 책자도 제작 중이며 11월 9일까지

공모 중인 '일상이 예술이야 안동 문화예술가 유튜브 브이로그 공모전'을 통해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동 문화도시 플랫폼을 통해 안동의 문화정보와 문화도시 사업을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안동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김영호/기자



산청군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신청하세요

10월8일까지 약초생산안정기금 지원사업

산청군은 오는 8일까지 약초생산안정기금을 활용한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당해연도 산청군에서 생산한 약초를 조합을 비롯한 약초가공업체, 도·소매상 등에 판매한 산청군 거주 농가 및 법인 등이다. 지원품목은 전락약초 4개 품목과 주재배약초 2개 품목이다. 지원요건은 약초별 재배면적 500

m²이상, 농가별 지원한도는 500만원 이내다. 자가 소비 및 개인 간 소규모 거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0월 중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는 판매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징구 및 확인 후 약초별 산정된 기준단가의 10%를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이 침체된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동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울산시 '울산관광재단' 내년 1월 출범 예정

울산의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전 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인 '울산관광재단'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관광재단'은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제조업 중심의 울산지역 경제 구조의 보완사업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여행 트렌드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마이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이 추진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시민 토론회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단법인 형태의 울산관광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5월 25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관광재단 설립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지난 9월 24일 제정·공포했다.

울산시는 10월부터 대표이사 등 임원을 공개 모집하고 정관 및 내규 제정, 창립총회 개최, 재단 설립등기, 직원 채용을 연내에 완료하고 기존 울산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시컨벤션, 울산시티투어 업무

를 이관·통합해 2021년 1월 재단 출범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울산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이를 마중물로 삼아 울산시가 경쟁력 있는 관광 및 마이스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며 "관광재단 출범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울산 관광 및 마이스 산업을 미래전략 주력산업으로 이끌어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호/기자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를 몰을 검색하세요

맛 좋고 빛깔 좋은 영양 핫과
영양추출 만든 빛깔산 과춤흔
검색 사이소에서 만능

청정 영양 원인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남원시 갈치마을 전국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동상 수상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경관·환경분야 우뚝서다

남원시 갈치마을이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해 시상금 1,500만원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24일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대회를 개최했다. 본 콘테스트는 2014년에 시작해,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역량을 발휘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98개 시·군 2,108개 마을 등에서 참여해, 시·도별 예선과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본선에 28개 마을 등이 참여했다. 작년까지 마을주민들이 직접 행사장에서 선보인 공연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해 방역기준에 맞춰 동영상 평가로 대체했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 독려를 위해 마을별 홍보 동영상은 유튜브에 사전 공개하고 관심있는 마을에 문자투표를 실시해

투표결과에 따라 마을별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의 자율·창의력·협동심을 고취하고 마을의 소득·문화·경관·환경 등 개선을 유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그간 갈치마을은 문화복지, 농촌경관 등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을 했다. 2017년부터 생태마을사업단을 구성 마을자재사업으로 마을소하천가로수 식재, 친환경 도랑 정비, 당산나무 환경정비, 노후담장 도색, 쓰레기분리수거, 마을게시판제작, 위험난간보수 등 많은 일들을 했다. 또한, 농촌활력프로그램으로 목공예교실 운영해 탁자, 의자 등 제작 다목적에 설치해 교육프로그램, 공동식사 등 활용도를 높였으며 도예교실 운영 주민들이 타일을 제작 회관 노후벽을 정비해 주민들 참여의지를 높였다. 갈치마을 이병구 이장은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마을을 전국 제일의 생태마을로 만들어 가고자 힘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코로나블루 치유 1600세대 어르신에게 금붕어 전달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어르신의 몸과 마음건강을 위해 독거노인 1,600세대를 방문해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금붕어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인 완도지역자활센터 116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추진됐다. 금붕어를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집에서 TV를 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어서 무료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써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치유하고자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월에는 풍나물 시루 전달, 6월에는 '코로나19 물러가라' 부채 만들기, 8월에는 나만의 쟁반 만들기 등을 추진해왔다. 7월에는 1,505세대에 마스크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에는 안전점검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는 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추석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점검

순천보건소

방문...코로나19·응급의료체계 비상근무자 격려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순천시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도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20일 만에 순천에서 1명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기간 연일 고생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순천에서만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방역 관계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응과 지역민들의 방역수칙 실천 등 적극적인 협조로 확산이 진정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부산 60대 확진자가 순천지역 장례식장에서 4일간 체류해 지역 확산이 우려됐지만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접촉자 179명 모두 음성 판정된 바 있다.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있어 코로나19 방역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순천시에 심층역학조사반을 긴급 파견, CCTV와 GPS 등을 분석하며 접촉자를 찾아



122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 격리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지역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남은 연휴기간 동안 지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해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연휴기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집에

머무르고, 보건소에서 먼저 상담 받은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 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지역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강진군, 전국 군단위 최초 3년 연속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8년부터 3년 연속 수상, 인센티브 1억원. 신규일자리사업에 재투자

강진군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전국지자체단체 일자리대상'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전국 군단위로는 최초이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수원시에 이어 2번째이다.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도, 일자리 대책의 지역 적합성과 창의성, 일자리 질 개선 등의 항목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중앙평가를 거쳐 일자리공시제 및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진행됐으며 정세균 국무총리,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최우수상 수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진군은 2018년 16.4%에 불과하던 강진산업단지 분양률을 100%로 급상승시키며 일자리 창출의 장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우도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관광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



진, 산업단지 취업박람회 개최 등 지역 현황에 맞춘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질 개선과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괄목할만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일자리 사업 추진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와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인센티브 1억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그린뉴딜 사업과 발맞춘 신규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에 참가한 이승욱 강진군수는 "3년 연속 최우수상의 쾌거를 올린 것은 기업체와 강진군민들의 협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시책 발굴 등 현장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전남도, 올해부터 '전기화물차' 보급 늘린다

올 448대 123억 지원...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개선 기여

전라남도는 올해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448대(국비 123억 원 지원)를 보급해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라남도도 따르면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총 4천 771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3만대, 충전기 6천 5백대를 도민들에게 보급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승용차 1천 676대(281억 원), 전기화물차 448대(123억 원), 전기이륜차 1천 42대(25억 원) 등 총 3천 2백여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차량이 출시되면서 올해부터 보급실적이 크게 증가한 추세다. 또한 시장수요 확대에 맞춰 지난 5월 포터Ⅱ, 6월에는 봉고Ⅲ, 탐차 형식 등 다양한 전기화물차 신규 차종도 추가 보급되고 있다.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고보조금 1천 800만 원, 시군비 600~800만 원이 지원되며, 도비는 시군비의 20%를 보조한다. 이에 따라 차량구매자

들은 2천 520만원에서 2천 7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급 대상지역은 여수, 순천, 광양 등 18개 시군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관리부서 또는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들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만 657대를 조기폐차했으며, 올해는 9천 879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기차 1km 주행할 경우 내연

기관차 대비 CO2 96.8g(51%)을 감축할 수 있으며, 1년 1만 6천km 운행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55t이 나 된다. 오는 2023년까지 전라남도 계획중인 전기자동차 3만대 보급을 마지면 앞으로 연간 4만 6천 500t의 감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이 48%나 차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각종 혜택과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특히 전남지역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생산제품 구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윤기자



이동진 진도군수, 군내 농공단지 방문...기업 관계자 격려

김치 등 식품 제조업체 찾아 애로사항 청취·격려

이동진 진도군수가 지난 24일 군내 농공단지를 방문, 제조업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진도군의 관문인 군내면 녹진리에 소재한 군내 농공단지는 김치 공장 등 식품 업체 입주 시작되고 있는 농수산식품 제조 전문단지이다. 이동진 군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최일선 경제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를 표했다. 또 식품 제조 특성상 정결 위생을 위해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의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군정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묘역시설에 제단까지” ‘고창 부곡리 고인돌’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

부곡리 고인돌,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서 도지정 문화재 지정. “학술적 가치 뛰어나”



제단으로 추정되는 방형의 돌출부가 확인됐다.

고창군에 분포하는 1600여 기의 고인돌 중 탁자식은 6기 정도의 극소수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부곡리 고인돌은 탁자식이며 묘역시설과 의례용 제단이 함께 마련된 독특한 형식구조로 청동기시대 권력자의 무덤이자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고인돌 축조기술과 변화양상, 지역적 특색 등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고인돌 왕국 고창에는 1600여 기 정도의 다양한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창군 전체의 고인돌 현황 파악은 물론, 표지판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부곡리 고인돌의 도기념물 지정을 통해 고창 고인돌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과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전북도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정헌율 시장, 인구정책 성공추진 위해 전략 구체화 돌입

기존 인구정책 성과검토 및 연어프로젝트, 귀농·귀촌 등 기존 핵심사업 추가

정헌율 시장이 5일 오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 발표한 인구정책 과제를 제일 먼저 보고토록 조치하면서 익산시가 인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략의 구체화에 돌입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헌율 시장은 “기존의 인구정책은 투입예산 대비 실효성이나 중복 여부 등을 따져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정책은 사업 확정 전까지 지역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전 발표한 인구정책에

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인구 관련 모든 사업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연어프로젝트 및 귀농·귀촌 사업 등 인구정책을 위한 기존 핵심 사업들은 물론 용안생태습지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 신규 주요사업도 인구과제로서 비중있게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정책과 관련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주여건 개선도 강조했다.

정 시장은 “도심 주차공간이나 가로환경 정비, 보도블럭 정비 등은 그 사업의 범위가 워낙 넓어 쉽게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조금만 소홀해도 불편을 초래한다”며 “연간 추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들이 체감도까지 고려해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인구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지금의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시 인구정책 추진에도 절박함이 묻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중장기 대책과 별도로 올 연말 호남 3대 도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28만 사수를 위한 단기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만이 직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선수/기자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군민 생활안정 도모

불의의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이 총 3건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 3건에 대한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3월 화재로 목숨을 잃은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됐으며 5월 익사사고로 숨진 군민의 유가족에게는 1,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지난 8월 유례없던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숨진

부부의 유가족에게는 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됐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민이면 누구나 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8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애 스키스노우보드 교통사고 부상비용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등 11개를 보장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홍대 과장은 “2021년부터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보장내용을 농기계관련 사고 포함, 재정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불의의 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승오/기자

“이것이 진짜 맛” 전주 맛 매거진 제작

전주음식의 역사와 문화 전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소개, 비빔밥 소리 QR 코드로 담기도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전주의 음식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종합매거진을 제작했다. 이는 전주의 음식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음식전문 잡지인 ‘전주맛’ 2호를 발간, 관광안내소와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에 배포하고 전자책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발간된 ‘전주맛’ 창간호가 역사성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이번 ‘전주맛’ 2호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주음식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이는 단순 맛집 소개를 넘어 전주음식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소개했으며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주제의 글과 재미있는 사진, 일러스트 등으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1897년 선교사 마티엥골드가 체험하고 기록한 전주음식 맛의 사색: 전주팔미와 함께 관광지 소개 혼불밥상: 소설 혼불에 나온 전주음식 재현 전주의 술시: 가맥, 막걸리 비빔밥을 담다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전주맛’ 2호에서는 비빔

밥의 소리를 QR코드로 담아 전주음식을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또 ISSN 부여로 연속간행물의 의미를 더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맛 매거진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시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록물로서 매우 의미있다”며 “향후 시는 전주음식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한지에 담은 희망의 꿈” 전주한지문화축제 성료

유튜브 채널, 한지공예 체험, 전주한지장인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 7000회 이상 조회 수 기록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열린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지난달 1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막을 올린 ‘제24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17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4일 폐막했다. ‘전주한지’로 희망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자리로 꾸며졌다.

행사가 진행된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에는 한지 조명등과 페폭으로 만든 대형고래 조형물, 한지 대형나비, 천사날개 등 다양한 포토존이 설치돼 추석 연휴기간까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힐링의 장소가 됐다. 포토존 사진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한지 액자가 제공됐다.

또 한지작품 전시장에서는 제1회 지승공예대상인 김혜미자 작가의 ‘3층상’과 제26회 기타부문 대상인 김현지·소희 작가의 ‘지승, 짜여짐’ 등 다양한 수상작들이 전시됐다.

지난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주한지문화축제와 한지공예대전 역대 포스터들도 소개돼 옛 추억을 소환했다.

관람은 코로나19 여파로 회차별, 공간별로 인원 수를 제한해 운영됐다.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는 신협여

부바 인형과 한지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으며 예담공예에서는 한지 조명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전주한지문화축제 유튜브 채널에는 한지 분야 산업체와 한지공예 체험, 전주한지장인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올려져, 축제 기간 조회 수 7000회를 넘어섰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됨에 따라 전주한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내년에는 전주한지문화축제를 보다 다채롭게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경춘선 폐선부지에 도심지 공원 완공

가평군이 '경춘선 폐선부지 2단계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해온 가평읍 읍내리 다한우~봉구스버거 구간 도심지 공원사업이 4년여 만에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 일원에서 시작해 시내 중심지를 거쳐 가평맛고을 전통시장내 레일바이크 탑승장까지의 선형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착공한 가평읍 읍내리 340-1번지 일원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총 9,480㎡ 면적에는 3,520㎡의 공원화 산책로 주차장 57면이 조성됐다. 또 도시계획도로 4개소 430m와 소나무 및 팔배나무 등 조경식재 10여종과 휴게그늘막 1식 등이 들어서 도심속 쉼터와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여

려워진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들에게 품격 높은 지역공간 제공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본 구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한다. 이곳에는 지역 예술인 등 전문작가팀이 참여해 회화, 조각, 건축, 미디어 아트 등의 작품설치가 이뤄져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경춘선 기존 가평역 폐철도 부지 3만7천㎡에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인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를 개장했다. 음악역 1939는 경춘선 가평역이 처음 문을 연 해다. 전철 개통으로 지난 2010년 경춘선이 폐선되자 문을 닫은 가평역 부지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는 국내 최고시설의 녹음실 스튜디오, 공연장, 연습실, 게스트하우스 등 뮤지션들이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



의 환경을 조성하고 뮤직센터 및 스튜디오, 연습동, 레지던스 등 음악관련 4개의 동과 레스토랑, 로컬푸드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뮤직센터에는 관내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작은 상영관 '1939 시네마'도 있다. 2개의 상영관으로 이전까지 개봉관이 없어 영화를 보려면 멀리 나가야 했던 가평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가격에 최신 개봉작을 볼 수 있게 됐다.

김영근기자

정책아카데미 10월부터 온라인 생중계 진행

매주 화 오후 4시 세종시 공식 유튜브 채널 중계...누구나 참여 가능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난 8월 25일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정책아카데미를 10월부터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세종시 대표 시민강자인 정책아카데미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2월 초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개편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간, 공간의 제약으로 참여 범위가 한 정적이었던 정책아카데미에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관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됐다. 10월 정책아카데미는 '교육·문화'를 주제로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세종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재은기자

태백시, 2020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 개최

태백시보건소는 10월부터 3개월간 치매 예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금년에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다가 거리두기 단계를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행사로 전환됐다.

태백시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걷기행사가 진행되는 3개월간은 매월 10만 보를 달성하는 선착순 100명과 게시판에 치매 극복 메시지를 남긴 참여자에게 주점을 통해 선

물이 제공된다. 모바일 앱 '워크온'을 다운로드해 태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하루 7,000보 이상 걸기실천으로 한 달 10만 보 '치매 극복 챌린지'를 달성하면 된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일상생활 속 주변 공간 어디서나 실천 가능한 개인적인 활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며 "여기에 치매도 예방하고 정신과 신체도 건강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지역 예술인 옥천군 드림팀 구성해 프로젝트 도전



옥천군,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작가팀 선정

옥천군이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을 맡을 작가팀으로 지역 예술인 연합으로 구성된 '옥천군 작가팀'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옥천군이 주관하며 주민의 참여와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를 반영한 공공미술을 설치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은 선정된 '옥천군 작가팀'에게 사업실행계획서를 접수하고 4억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옥천군은 지난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용문화관 및 문화예술회관과 2주간의 공간을 활용해 향수를 주제로 한 작품 설치 및 공간을 조성할 작가팀을 공모했다.

김원호기자

서천군, 마량리 동백나무 숲 관람로 시설물 개선

서천군은 매년 15만명이 방문하는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의 관람로 시설물 정비를 지난 2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백나무 숲의 관람로는 가파른 계단이 포함돼 있음에도 구조체 부분이 부식되는 등 시설물 노후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군은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1월

실계를 시작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했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시설물 개선공사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의 편의성과 안전을 확보했다"며 "서천군의 9경 중 1경으로 선정된 대표 관광지 동백나무 숲이 더 많은 방문객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2021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D-365 기념 이벤트 개최

2021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개최 D-365와 72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 14일까지 16일간, 엑스포 공식 SNS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 이벤트는 엑스포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공식 SNS를 구독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 중 총 365명을 무작위 추첨해 문화상품권 3만원권, 치킨 세트, 햄버거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당초 올해 9월 18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엑스포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1년 10월 1일부터 열릴 예정이다"며 "2021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행사 전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며 "본 이벤트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집에서 공부하자 똑똑 고당클래스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흉전군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인 '똑똑 고당클래스'를 10월부터 운영한다.

교육을 신청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보건소와 센터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와 교육물품을 가정으로 배송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전화를 통해 추가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교육영상은 흉전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제작한 유튜브 채널인 '혈관이 알고 싶다' 시청 혹은 QR코드 접속을 통해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질환, 영양, 운동 등으로 구성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병의 이해, 질환의 발생원인, 주요증상, 합병증, 고혈압·당뇨병의 관리방법, 식사관리의 중요성, 건강하게 영양관리 하는 방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만큼,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질환자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주)한국정밀기계 조정섭 대표, 소요동에 백미 30포 기탁

동두천시 (주)한국정밀기계는 지난 달 29일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백미 30포를 소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소요동 자율방범후원회 회장인 (주)한국정밀기계 조정섭 대표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성금 등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정섭 대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택 소요동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신 (주)한국정밀기계 조정섭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백미는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세종시청 테니스팀, 남자 복식 1·2위 석권

남자 단식 3위도...올해 첫
오픈대회서 국내 최정상 팀 입증

세종특별자치시청 테니스팀이 지난 달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0년도 안동오픈 테니스대회에서 남자 복식 1·2위, 남자 단식 3위를 차지하며 국내 최정상 팀임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전국체전이 취소되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픈대회로 전국 각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한국선수권을 발발케 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 복식에 출전한 신산희-홍성찬 조가 1위를 차지했으며 남지성-정영훈 조는 2위에 올랐다. 남자 단식에 출전한 남지성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지난 6월 양구에서 열린 제1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에서도 남자 단체·개인전 각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 우승으로 우수인재 양성 메카라는 명성을 지켰다.



이준희 시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하며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과 이들을 잘 이끌어준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

으로도 선수들의 기량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문정우 금산군수, 제39회 온라인 금산인삼축제 홍보총력 지시

문정우 금산군수는 5일간부회의에서 "올해 금산인삼축제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며 "축제 현장에서 인삼구매와 함께 진행되는 방식이 아닌 관계로 온라인을 통한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에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축제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용방법을 친절이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현수막, 에드블론, 전단지 등 설치·배포를 통해 주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강조했다.

제39회 온라인 금산인삼축제는 공식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금산인삼TV, 온택트 인삼·약초 체험, 집콕 도전 이벤트, 온라인 인삼마켓 등 온라인 프로그램에 더해 인삼캐기체험 등 현장 이벤트도 진행된다. 문 군수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 "농가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중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기계에 야광판, 방향표시등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정화기자



김해시, 우수 자원봉사왕에 전효석씨 선정

나이와 언어장벽을 뛰어넘는 자원봉사

김해시는 올해 8월 한 달간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한 자원 봉사자 전효석씨를 우수자원봉사왕에 선정했다. 전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년 이상 은빛나눔미봉사단, 김해시 외국어 봉사단, 김해시문화원에 소속되어 외국어를 활용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임해왔다. 특히 저소득 아동 및 노인 대상 외국어 교육, 외국

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국내 출입국 외국인 수속 안내와 민원서류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재능나눔을 펼치면서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와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 지원, 긍정적인 김해시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전씨의 누적 봉사시간은 총 1,709회 7,045시간에 이르며 2018년 경상남도자원봉사왕, 2019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하는 등 노년기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김태문 시민복지국장은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제 2막의 인생을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살려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우수 봉사왕을 보며 자원봉사는 나이도 언어장벽도 막을 수 없는 숭고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펼치고 계신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기에 김해가 자원봉사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 같다. 늘 감사한 마음이며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쉬운 공공언어 쓰기' 강조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배려해야"

김정섭 공주시장이 오는 9일 제 574돌 한글날을 앞두고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을 고려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5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춰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우리말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외래어나 신조어, 지나친 축약어 등이 빈번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행정기관에서 공문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배려의 원칙을 지

켜야 한다"며 "따라서 시민들과 마주하는 언어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쪽으로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언어에서 중요한 화두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이다. 공공언어를 쉽게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소통의 편의를 위해서이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위해 우선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문서를 비롯해 민원서류, 게시문, 안내문 등에 외래어와 한자어, 성차별 표현 등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이름 및 사업, 정책을 가능하면 한글로 정하고 도로나 관광 안내표지판, 지도 등에 사용되는 지명과 문화재명 등 우리말 명

칭에 대해 통일관 영문 번역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소통의 상대방을 배려한 공공언어 쓰기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의 첫걸음이자 핵심 요소"며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고 정책 고객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공직자들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의왕시 부곡초등학교 출신 김기중 선수 한화이글스 프로구단 입단

의왕시 부곡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매송중학교를 거쳐 유신고등학교 야구부에 들어간 김기중 선수가 한화이글스 프로구단에 입단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 태백에서 오로지 야구를 하겠다는 일념 하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의왕시 부곡초등학교 야구부에 문을 두드린 김기중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타고난 피지컬과 힘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선수였다. 2021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김기중 선수는 고등학교 통산 성적 7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 대회 청룡기 유신고 4강 진출

의 주역이다. 의왕 부곡초등학교 야구부의 미래는 밝다. NC 김진호 투수에 이어 3년 만에 김기중 선수의 지명으로 의왕 부곡초등학교 야구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있다. 바로 안양 중학교 야구부 유격수 김민서 선수가 의왕 부곡초등학교 선배들의 뒤를 이어 프로의 호명을 기다리고 있다. 김민서 선수는 기본기가 튼튼한 선수로 좋은 타격과 유연하고 안정된 수비, 빠른 발로 공·수·주 3박자를 두루 갖춘 선수이다. 의왕시 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곡초등학교 야구부 출신 선수

들이 매년 프로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찬기자



“국악으로 물드는 가을, 흥겨운 국악공연 보러 오세요”

‘광주 국악상설공연’ 6일부터 대면공연 재개

지난 8월23일부터 모든 공연이 중단된 후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광주 대표 문화상품 및 브랜드 공연인 ‘광주 국악상설공연’이 한달여 만에 6일부터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광주국악상설공연은 매일 (일, 월 휴관)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거리두기 지정좌석제(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립예술단(창극단, 국악관현악단)과 지역 민간예술단체 10개팀이 출연해 매일 다양하고 흥겨운 국악무대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할 예정이다.주요 공연 일정을 보면, 10월 첫 대면공연인 6일에는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국악 새로이 날다’라는 주제로 김광복 피리명인의 피리독주 ‘팔도민요연곡’을 시작으로 역동적인 무대인 모듬북 합주, 단막극 홍보가 중 ‘화초장’ 대목을 공연하고 관객과 모든 출연진이 다함께부르는 노래 ‘진도아리랑’ 무대로 마무리한다.16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전통춤의 가장 기본형으로 허튼춤이라고도 하는 ‘입춤고’, 판소리 수궁가의 내용을 각색한 작품

인 단막창극 ‘나 토끼 아니오’ 판국과 경고무 등 흥겨운 국악무대를 보여준다.23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10월의 어느 날’이라는 주제로 관현악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 ‘프린스 오브 제주’ 등 아름다운 국악 선율을 전달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11월중에 KBC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대면공연에 앞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친 시민들에게 어디서나 국악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9월19일부터 매주 목·토 오후 5시에 기존의 공연 영상과 알기 쉬운 사회자 해설을 재편집해 제공해왔다. 공연 영상 콘텐츠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대면공연을 전면하지 못할 경우 다시 제공할 예정이다.6일부터 재개된 대면공연 중 매주 목·토 공연은 문예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02x5SS_0-45ZZ13ROGsdTQ



한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객석제(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를 유지해 관객 사이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용 객석은 50% 미만으로 줄여 운영한다.또 공연장 입장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관람객 문

원미도서관, 피아니스트와 함께 하는 클래식 음악 테라피

클래식 음악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 현직 피아니스트가 알려드려요~

원미도서관에서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현직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테라피를 준비했다. 10월 8일과 15일 현직 피아니스트 임하나 교수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해설을 제공하는 ‘클래식 음악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임하나 교수는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클래식 콘서트, 테라피 및 인문학은·오프라인 강의를 2017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1회차 강의에서는 라벨의 ‘볼레로’를 감상하고 클래식 음악 감상 시 알아두면 좋은 기초용어를 안내한다. 2회차에서는 인상주의 대표 예술가로서 시대적 연관성이 깊은 드뷔시의 음악과 모네의 미술작품을 감상한다.강의 추천 대상은 평소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지만 접근 방법을 원하는 시민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신청·참여탭의 문화프로 그램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은 강의 당일 문자로 안내된 주소로 접속한 후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된다.

이동원/기자

이승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개인전 개최

홍성군 고암이승노 생가기념관에서는 오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4기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개인전은 입주작가 3인의 릴레이 전시로 진행되며 10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민택기 작가의 개인전 "Passing through"展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정직성 작가의 개인전 "기계 The Mechanic"展을 11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김제원 작가의 개인전 "The Third Spaces"展이 열린다. 릴레이로 진행되는 입주작가 개인전의 첫 번째 전시 "Passing through"展은 민택기 작가가 홍성에서 8년간 살면서 작업한 풍경 사진 작품들로 이루어진다. 민 작가는 "이번 작업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선형적 지식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나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사진으로 그린 12점의 작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리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두 번째 전시 "기계 The Mechanic"展은 재현과 추상을 넘나들며 직관적인 필치로 역

동적인 화면을 펼쳐온 정직성 작가의 개인전으로 정 작가는 "자동차 정비공의 작업장에 놓여있는 기계들을 속도감 있는 흐르는 붓질로 형상화해 작업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그림들"을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의 마지막 전시인 - 'The Third Spaces'展은 김제원 작가가 지난 5년 여간 여러 나라를 이동하며 진행해 온 '장소 특정적 미술' 설치 프로젝트의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가 될 예정이다. 또한 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홍성군 흥복읍 중계리 흥전마을의 이삼관 씨 노부부의 집에서 진행한 "어떤 노부부의 집 프로젝트"를 새로이 선보이며 이 집을 프로젝트 장소로 결정하기까지의 8개월의 여정도 함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노의 집은 현재 '코로나19'상황에 대응해 휴관기간이나, 지난 8개월간 입주해 지속적으로 작업에 전착해온 예술가의 개인전을 열기 위해 거리두기 및 코로나 대응 지침을 준수하면서 재개관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광명문화재단의 할로윈 공연

무경계 음악 콘서트 <크라임넷×이날치×로다운30·제이통> 2020년 광명시민회관 기획 공연 '할로윈 특집-무경계 음악 콘서트 <크라임넷×이날치×로다운30·제이통>'가 10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네이버TV 광명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관람이 가능하다.무경계 음악 콘서트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즐길 수 있는 콘서트 시리즈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광명문화재단의 기획 공연이다. 코로나19로 문화생활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공연으로 전환하였으며,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할로윈 특집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밴드 중 한 팀으로 대한민국 록계를 '말달려'온 영원불타오르는 팡팡'크라임넷'과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의 주인공이자 2020년 가장 힙한 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별 내려온다'317만 조회수의 '이날치' 그리고 탁월한 연주력과 확고한 스타일을 겸비한 밴드 '로다운 30'과 독자적인 레퍼의 래퍼 '제이통'은 이번 공연을 통해 개성 넘치는 그들만의 사운드를 보여줄 예정이다.무경계 음악 콘서트를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해 광명문화재단은 <엔터테인먼트 할로윈키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청 링크를 통해 '공연 기대평'과 '할로윈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할로윈 분위기를 만

오정도서관, '슬기로운 집콕생활, 사적인 책처방' 운영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1:1 책처방으로 날려버리세요~

부천시 오정도서관은 문화의 달을 맞이해 온라인 맞춤형 책처방 프로그램 '슬기로운 집콕생활, 사적인 책처방'을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 책처방은 독자의 고민 상담을 해 주고 고민을 털어줄 수 있는 책을 소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사적인 책처방'은 사전 신청자 20명의 사연 중 매주 2명의 사연을 선정해 그에 맞는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네이버 밴드 '책읽는 도시 부천'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다.책처방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읽는 도시 부천' 밴드에 가입했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는 북디렉터 정지혜 대표가 책처방을 해 줄 '책 주치의'를 맡았다. 정 대표는 2016년부터 독립서점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며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우릴 구할거야'등을 퍼냈다. '사적인 책처방'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동원/기자

부산 최대 다문화축제 '제15회 부산세계시민축제' 개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랜선으로 즐기는 세계문화여행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지난 15년간 이어온 부산 최대 다문화 축제인 '제15회 부산세계시민축제-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 다문화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이번 축제는 주한외국공관 및 부산 지역 외국인 커뮤니티 등 35여 개 단체가 함께하며 10월 11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세계문화를 손쉽게 즐길 수 있다.특히 국가별 물품을 VR로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전통공연 및 요리 등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이번 축제는 10월 11일 오후 2시,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최된다.개막식은 변성원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모하메드

엘 아민 데라기 주한알제리대사의 '축하말씀' 재단 사무총장의 '축제의 비전과 목표를 소개' 부산 출신 유명 여행 유튜버 '과튜브'의 '제15회 부산세계시민축제 온라인 플랫폼 소개' '100인의 세계시민단 발대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 및 외국인 주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100인의 부산세계시민단'은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인종과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바른 세계시민의식을 통해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부산'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다전해속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제15회 부산세계시민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올해 새롭게 이름을 바꾼 만큼, 부산시민과 외국인 주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니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광남/대기자



권익현부안군수, “올해사업 마무리 총력 내년 준비 철저히”

주요 간부회의서 강조...실질적인 용역사업 추진 등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0년 4분기를 맞아 올해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고 내년 사업 준비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5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올해도 어느덧 4분기를 맞고 있다.”

4분기는 올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며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에는 예산성과금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한국판 뉴딜과 혁신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실질적으로 군정에 적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용역을 추진해 달라”며 “용역결과물을 정책개발이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2차 재난지원금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소규모 양돈시설까지 모니터링 해 악취 없는 청정부안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경남, 내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국 최대 규모 추진

노후 심한 폐수처리장 사업대상으로 적극 발굴, 에너지절감에서 높은 평가

경상남도가 내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전체 국비 사업비 80억 원 중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도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한 결과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도 전국 50개 사업 중 경남이 6개 시군의 9개 사업으로 가장 많아, 내년도 전국 최대 규모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시설과 정보통신 에너지절약 연계시설 등을 지원해 지역 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산업부 공모사업 공개평가에 대비해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총 3회의 자체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또한 노후화가 심한 도

내 폐수처리장을 사업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기도 해 에너지 절감 효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 시·군별로 선정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진주의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거제의 중앙하수처리시설 송풍기 교체, 가문동 양방향 점멸기 설치,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야간가로등 교체, 사천의 하수처리 시설 송풍기 교체, 양산의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브로워 교체 및 유입펌프 인버터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 송풍기 교체, 거창의 환경기초시설 고효율 설비 개선, 함안의 도로조명 LED 교체 사업 등이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들을 추진해 연간 1,186toe의 에너지 절감과 2,31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5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시설 및 설비지원 사업으로 투자해,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광기자



‘플랫폼시티’국토부에 사업인정 협의 신청



용인시, 사유지 토지사용동의 57.53% 확보...개발사업 추진 청신호

용인시는 5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협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에 달하는 198만㎡ 토지소유자 1320명에게 협조를 요청해 과반이 넘는 57.53%인 113만㎡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협의의 시 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유지 면적에 대한 적정 비율의 사전 토지사용동의를 심사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시는 사전 토지사용동의가 충족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토지소유

자들을 대상으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왔으며 지난 7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 거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완료 후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토지보상 관련 협의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인 2021년 하반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대토 수유를 파악해 맞춤형 대토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근기 용인시장은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주들과 상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서천군, 2021년 충남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선정

서천특화시장 내년 상반기 화장실 및 다용도실 새단장

서천군은 서천특화시장이 충남도에서 시행한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돼 시장 내 공중화장실과 다용도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천특화시장은 최근 실시한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분석 결과 전국 1400여 전통시장 중 20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서천군 관광객 필수코스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이에 반해 2004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화장실과 다용도실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 등에 따른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방문객에 비해

낙후됐던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이용객과 상인이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희람 지역경제과장은 “서천특화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서해안 대표시장에 걸맞은 쾌적한 시장 환경 개선으로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초격차 경영의 글로벌 나노소재 강소기업 (주)레몬 '20년 10월 구미시 이달의 기업 선정

구미시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레몬을 선정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고려해 사기계양식은 생략하고 회사기만 게양한다. 2020년 10월 구미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레몬은 구미분사 기업으로 나노 기술을 근간으로 나노섬유, 휴대전화 전자파 차폐 제품, 도전성 테이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레몬은 2007년 모회사인 ㈜토탈 나노사업부의 전기방사 설비 개발로 시작되어 2012년 나노사업부문의 본격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토탈에이치엔에스 법인을 설립했고 2013년 세계 최대 규모의 나노섬유 멤브레인 양산라인 구축, 2014년 전자파 차폐시트 양산 출하, 2017년 현재의 ㈜레몬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또한 끊임 없는 기술

개발과 제조공정혁신으로 200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에 선정됐고 2010년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2019년 고용노동행정 발전 부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표창장 수상,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미시는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레몬을 2020년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해 예우하고 감사의 의미를 담아 시청사에 한 달간 회사기를 게양한다. 김효규 대표는 “레몬은 그동안 나노기술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으로 나노기술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나노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원형기자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